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느헤미야 —

민경진*

이번 느헤미야서를 번역할 때 좀 더 유념하여 번역한 점이 있습니다. 곧 적합한 단어 선택, 현대어로 쉽게 풀어쓰기, 흐름에 맞게 다듬기, 신학적 오해 해소,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 살리기 등입니다. 각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 보겠습니다.

1. 느헤미야 1:1 — 좀 더 적합한 단어 선택의 사례

BHS⁵

דָּבָר נְחֵמְיָה בֶּן-חַכְלִיָּה

- | | |
|--------|------------------------------|
| 『개역개정』 | 하갈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u>말</u> 이라 |
| 『새번역』 | 하갈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u>말</u> 이다. |
| 『공동개정』 | 하갈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u>수기</u> . |
| 『새한글』 | 하갈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u>일</u> . |

1.1. 차이점 관찰

- (1) 히브리어 דָּבָר(다바르)가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말’로(『개역개정』, 『새번역』, 『성경』[2005]), 『공동개정』에서는 ‘수기(手記)’로 번역되었습니다.
- (2) 『새한글』에서는 기존의 번역본들과는 달리 ‘일’로 번역했습니다.

* Durham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kjmin21@hanmail.net.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대부분의 외국어 역본 역시 ‘말(words; worte)’로 번역했습니다(ESV, NET, ZB).

(2) ‘말’보다는 ‘기록’에 방점을 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가령, BB는 ‘보고(報告; Bericht)’로, LB는 ‘사건 기록(Geschichte)’으로, NLT는 ‘회고록(memoirs)’으로 번역하였습니다.

1.3. 차이점에 대한 고찰

(1) 상당수의 역본들이 히브리어 דָּבָר(다바르)의 일차적 의미인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דָּבָר(다바르)가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 — 특히 예언서 — 의 서두에 사용될 때 대부분 ‘말’로 번역되었기에(렘 1:1; 암 1:1; 호 1:1; 욥 1:1 등) 일관성 있는 번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곳의 דָּבָר(다바르)를 ‘말’로 번역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성격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預言者)가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דָּבָר(다바르)를 ‘말’, 혹은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은 온당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언자가 아니고 느헤미야서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두 전달이 아니므로 דָּבָר(다바르)가 지니는 다른 뜻을 대안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번역본에서는 ‘보고’, ‘기록’, ‘수기’ 등의 단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추가적 설명

(1) 『새한글』에서는 דָּבָר(다바르)를 ‘일’로 번역했습니다. 구약성경에 1,4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 דָּבָר(다바르)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각 책의 서두에서 하나님이나 예언자가 주어일 경우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행정가였고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처리한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דָּבָר(다바르)를 느헤미야가 한 ‘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2)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개인이 적어 둔 회고록이나 수기(memoirs) 등을 토대로 후대에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번역본들의 ‘기록’이나 ‘보고’ 등의 번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느헤미야가 직접 수행한 생생한 사역이 잘 전달되지 않는 정태(靜態)적 성격의 단어라

는 점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3)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할 때, דָּבָר(다바르)를 단순히 ‘말’로 번역하는 것은 느헤미야서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기록’이나 ‘보고’는 서술적 성격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느헤미야의 실질적인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의 지도력과 행정적 성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후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행동들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דָּבָר(다바르)를 ‘일’로 번역하는 것은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2. 느헤미야 3:4 — 현대어로 쉽게 풀어쓴 사례

BHS ⁵	וְעַל־יָדָם הַחֹזִיק מְרֻמֹּת בְּנֵי־אֹרֶיָה בְּנֵי־הַקִּיץ ... וְעַל־יָדָם הַחֹזִיק ... וְעַל־יָדָם הַחֹזִיק :
『개역개정』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트레못이 <u>중수하였고</u> 그 다음은 ... <u>중수하였고</u> 그 다음은 ... <u>중수하였고</u>
『새번역』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트레못이 <u>보수하였고</u> , 그 다음은 ... <u>보수하였으며</u> , 그 다음은 ... <u>보수하였다</u> .
『공동개정』	그 다음 잇당은 부분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트레못이 <u>보수하였고</u> 그 옆에 잇당은 부분은 ... <u>보수하였으며</u> , 그 다음 잇당은 부분은 ... <u>보수하였다</u> .
『새한글』	그들 옆에서는 우리야의 아들이자 학고스의 손자인 트레못이 성벽을 <u>손질해 고쳤다</u> . 그들 옆에서는 ... <u>손질해 고쳤다</u> . 그들 옆에서는 ... <u>손질해 고쳤다</u> .

2.1. 차이점 관찰

(1) 본문의 חֲזָק(헤헤지크)는 일반적으로 ‘중수하다’(『개역개정』) 혹은 ‘보수하다’(『새번역』, 『공동개정』)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확고하다’를 의미하는 חָזַק(하자크)의 히필형이므로 ‘확고하게 하다(to make firm)’라는 의미를 본문의 흐름에 맞춰 번역한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중수(重修)’나 ‘보수(補修)’가 한자어로 다소 기술적이고 공식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새한글』에서는 보다 일상적인 표현인 ‘손질해 고치다’로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일부 역본은 이 단어를 두루뭇술하게 포괄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LB는 ‘건축하다’로, NET는 ‘작업하다’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총체적으로 재건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2) 다른 번역본들은 한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수리하다’(ESV) 혹은 ‘교체하다(erneuern)’(BB)로 번역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작업의 규모가 다소 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ZB는 이 구절에 3회 나오는 פִּנְּנוּ(헤헤지크)를 첫 번째는 ‘수행하다(ausführen)’로, 뒤의 두 경우는 ‘개선하다(ausbessern)’로 옮김으로써 어감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 차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פִּנְּנוּ(헤헤지크)는 느헤미야 3장에서만 34회 반복되며, 문맥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ZB가 동일한 단어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한 것은 원문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2)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곧 유다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에 대한 보도가 주요 내용이므로 פִּנְּנוּ(헤헤지크)를 ‘건축하다’, ‘작업하다’ 등으로 번역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3) 하지만 성벽 재건에 참여한 대다수가 건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백성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작업은 대규모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손질해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작업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수’나 ‘보수’ 등도 내용에 어울리는 번역이지만, 현대어로 쉽게 다듬었습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추가적 설명

(1) 느헤미야 6:15에 의하면 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 진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입니다. 가령 요세푸스는 이 공사가 대략 2년 4개월은 걸렸을 것이라고 주

장했습니다.¹⁾

(2) 요세푸스가 추정 한 기간은 성벽의 전면적 재건을 전제로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 **הַחֵצִיץ**(헤헤지크)가 의미하는 바가 기존 성벽을 ‘손질하여 고친 것’이라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공되었다는 성경의 증언이 충분히 신뢰할 만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 느헤미야 4:2[3:34] — 난해 구절을 흐름에 맞게 다듬은 번역의 사례

BHS ⁵	וַיֹּאמֶר לִפְנֵי אָחָיו וְחֵיל שְׂמֶרֶן וַיֹּאמֶר מֶה הַיְּהוּדִים הָאֵלֶּלֶּיִם עֲשִׂים הַעֲזָבוּ לָהֶם הַיּוֹצֵחוּ הַיִּכְלוּ כִּי־יָם הַיָּחִיד אֶת־הָאֲבָנִים מֵעֲרֻמּוֹת הָעֵפֶר וְהָמָה שְׂרֻפּוֹת:
『개역개정』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u>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u> ,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새번역』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u>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u>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공동개정』	자기 일족들과 사마리아의 세력가들 앞에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였다. “유다 놈들, 그 다 말라빠진 것들이 무얼 한다는 거지? <u>누가 내버려둘 줄 알고?</u>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에 일을 끝낸다고? 불타 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쓴다고?”
『새한글』	그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쓰러질 것 같은 유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가? <u>자기네끼리 그것을 처음 모습으로 고치려는 건가?</u> 그래서 제물을 바치겠다는 건가? 오늘 다 끝 내려는 건가? 잿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서 다시 쓰겠다는 건가? 그것들은 불에 그을린 것들인데.”

1) Josephus, *Antiquities*, IV, v. 8.

3.1. 차이점 관찰

(1) לָהֶם הֵיטִיבוּ(하야아즈부 라헬)에 대해 역본들 사이에 번역의 차이가 큼니다.

(2) 『공동개정』은 히브리어 동사 עֲזַב(아자브)의 기본 의미인 ‘포기하다(to abandon)’, ‘버려두다(to let alone)’의 의미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두는 주체를 ‘그들’에서 ‘누구’로 변경하는 과도한 의역을 했습니다. 『새번역』은 עֲזַב(아자브)의 두 번째 어근을 토대로 ‘회복하다(to restore)’의 의미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성벽’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했습니다. 『개정개정』은 재귀의 의미를 담아 번역했지만 본문의 동사 עֲזַב(아자브)는 니팔형이 아닌 칼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1) 외국어 역본들 역시 번역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일부 역본(LB, BB, NET 등)은 לָהֶם הֵיטִיבוּ(하야아즈부 라헬)의 전치사 לְ(르)를 강조하여 ‘~에게 내버려두다(to leave ~ to)’로 번역합니다. 다른 역본(ESV, RSV 등)은 עֲזַב(아자브)의 두 번째 어근에 근거해서 ‘to restore’로 번역합니다.

(3) 일부 학자(가령, H. G. M. Williamson)는 לָהֶם(라헬)을 לְאֱלֹהִים(렐로힘)으로 수정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가?’로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래는 לָהֶם הֵיטִיבוּ לְאֱלֹהִים(하야아즈부 렐로힘)이었는데, 전치사 לְ(르)가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오자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로 오해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서기관이 수정(Tiqqun Sopherim)을 가했으며, 현재 본문은 לָהֶם(라헬)으로 변경되었지만 번역은 본래의 본문에 근거해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역본들 사이에 번역이 일치되지 않은 이유는 이곳에 사용된 עֲזַב(아자브)의 어근의 기본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그들(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내버려 둘 것인가?’가 되어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로 인해 많은 역본들이 עֲזַב(아자브)의 두 번째 어근의 의미인 ‘회복

하다’를 적용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3:8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본래 모습으로 고친다(וַיַּעֲבֹר יְרוּשָׁלַם)[와야아즈부 여루살라임])’는 의미로 쓰였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좀 더 나아가 לָחֵם(라헴)은 ‘유익의 여격(dativus commodi)’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은 본래 모습으로 고치려는 행위가 유다 백성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반영하여 ‘자기네끼리 그것을 처음 모습으로 고치려는 건가?’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과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4) 이 구절은 난해한 본문을 번역할 때 단순 직역이 아닌 문맥적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느헤미야 5:19 — 신학적 오해 해소를 염두에 둔 번역의 사례

BHS ⁵	זָכְרָה לִי אֱלֹהֵי לְטוֹבָה כָּל אֲשֶׁר-עָשִׂיתִי עַל-הָעָם הַזֶּה:
『개역개정』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u>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u>
『새번역』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u>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u> ”
『공동개정』	나의 하느님이며,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u>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잘 보살피 주십시오!</u>
『새한글』	“나의 하나님, <u>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도 록요.</u> 내가 이 백성에게 했던 <u>모든 일일요.</u> ”

4.1. 차이점 관찰

(1) זָכְרָה(조크라)는 강세 명령형으로서 직역하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가 됩니다. 이 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데 하나는 לִי(리, ‘나’)이고, 다른 하나는 לְטוֹבָה(르토바, ‘선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본들은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 ‘행했던 일’을 먼저 언급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는 방식으로 번역했습니다.

(2) 반면 『새한글』은 먼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서로 번역을 하고 있어 다른 번역본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1) 주요 외국어 역본(LB, BB, ESV)도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 베푼 선한 일들을 먼저 기억해 달라는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 반면 ZB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게 유익이 되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해 내가 행한 모든 일을요.’로 번역하여 『새한글』의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대부분의 역본들은 לְטוֹבָה(르토바)를 זָכוֹרָה(조크라)의 직접 목적어로, לִי(리)를 간접 목적어로 해석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해석입니다.

(2)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신학적 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내가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만한 공로로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 실제로 유대 전승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느헤미야가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²⁾

(4) 『새한글』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로 선한 일이 주어진다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부합하도록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신학적 오해를 방지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5. 느헤미야 8:7 —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고려한 번역의 사례

BHS⁵ וַיִּשְׁמַע וְבָנֵי וְשָׂרֵיָהּ יָמִין עֲקֹב שְׁבָתִי הוֹדִיָּה מַעֲשֵׂיהָ קְלִיטָא
 עֲזָרְיָהּ יוֹזְבֵד חֲנָן פִּלְאִיָּה וְחֲלָיִים מְבִינִים אֶת־הָעָם לְתוֹרָה
 וְהָעָם עַל־עֲמֻדָּם:

『개역개정』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2) BT, *Sanhedrin* 93b.

『새번역』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 는 ,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공동개정』	그리고 백성은 일어서서 레위인들인 예수아,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아굽, 삽대, 호디아, 마아세야, 클리다, 아자리야, 요자밧, 하난, 블라야 에게서 법을 배웠다.
『새한글』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삽브대, 호디아, 마아세야, 클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와 같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깨우쳐 주었다. 백성은 자기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5.1. 차이점 관찰

(1) 히브리어 원문에는 13명의 이름이 열거된 후 **וְלֵוִי**(위할르위임,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번역본들은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첫째 방식은 13명의 이름(예수아~블라야)과 레위 사람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즉 접속사 **וְ**(위)를 ‘그리고’로 번역하는 방식이며, 『개역개정』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3) 두 번째 방식은 거명된 13명을 레위인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일부 고대 역본들(가령, IEs 9:48)을 따라 **וְ**(위)를 생략하여 번역한 것인데 『새번역』과 『공동개정』이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 경우 거명된 13명은 모두 레위인들이 됩니다. 『새한글』 역시 이 방식을 따라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ZB 외에 대부분의 외국어 번역본(LB, BB, ESV, NET)은 두 번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곧 앞서 거명되고 있는 13명을 레위인들과 동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NET는 13명 전원이 레위인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을

다룹니다(1-12절). 이 기사에는 각각 13명의 이름이 4절과 7절 두 곳에 나옵니다. 4절에 언급된 이들은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을 읽어줄 때 에스라 곁에 서 있던 이들인 반면, 7절에 언급된 이들은 백성들 곁에서 율법을 깨닫게 해주던 이들입니다.

(2) 13명으로 평행을 이루는 이 무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절의 13명은 다른 본문에서 주로 제사장들이나(라 8:33; 10:18; 느 11:11; 12:7, 35, 41, 42) 백성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언급됩니다(라 8:16; 느 10:18, 22). 반면 7절에 언급된 13명의 명단은 다른 본문에서 레위인들 명단과 대체적으로 겹칩니다(느 10:9-13; 12:8-9, 24-25). 곧 13명의 명단들이 4절에서는 제사장 그룹을, 7절에서는 레위인 그룹을 각각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다수의 역본들이 **וְהַלְוִיִּים**(위 할르위임)에 있는 접속사 **וְ**(위)를 생략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추가적 설명

(1) 『새한글』은 이런 점을 반영하여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과는 달리 ‘레위 사람들’을 문장의 첫 부분이 아니라 후반부에 배치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레위인들’을 13명 명단의 앞에 두어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한글』은 의미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최대한 반영하는 번역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주제어>(Keywords)

느헤미야 1:1, 느헤미야 3:4, 느헤미야 4:2, 느헤미야 5:19, 느헤미야 8:7.
Nehemiah 1:1, Nehemiah 3:4, Nehemiah 4:2, Nehemiah 5:19, Nehemiah 8:7.

(투고 일자: 2025년 2월 27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3일)